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우리 손으로'

무주군 사회복지대회 성료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사회복지대회가 지난 9일 무주읍 에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용식)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최원규 회장, 무진장사회복지사협회 이영재 회장과 무주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기념식에서는 민수희 씨(33세, 무주청소년수련관)가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백민제 씨(48세, 무주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가 무주군의회의장상을, 송가을 씨(35세, 무주9987노인복지센터)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박선영 씨(39세,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7급)과 조삼예 씨(51세,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김성모 씨(29세, 하은의 집)가 무진장사회복지사협회장상을, 이규순 씨(54세, 무주군평화요양원)와 이재숙 씨(59세, 반디재가복지센터)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받았다.

황 군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 해야 2만 5천여 우리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밝아지며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긍심을 키우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은 더불어 함께 하는 속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순서로 마련된 사회복지힐링 프로그램에서는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정복 강사가 "공감과 소통으로 내 인생 행복만들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며 "내가 하는 일이 지역과 이웃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사회복지한마음대회 '성황'

제10회 진안군사회복지(회장 송상모) 한마음대회가 지난 9일 이항로 군수,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읍·면 저소득층 주민들과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관계자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식전행사로 마이골음악회와 제일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행사장 앞에서 이혈, 수지침, 혈압·혈당체크, 네일아트, 이·미용봉사, 가포마사지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SSN좋은이웃들은 '소외계층 발굴의 날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으며 어려운 이웃들이 서로 돕는 좋은이웃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식 후에는 수피아 하모니카공연, 그럭저럭밴드, 가수 서윤 공연이 이어졌고, 식 사이사이 경품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전달됐다. 특히 (주)건보, (주)그린파이프, (주)원광전자, 한국고려홍삼조합(주), 문치과의원, 대한노인회진안군지회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후원한 생활 지원금 1,000만원이 인보다문화센터를 비롯한 이날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송상모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앞으로 어려운 군민에게 더욱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축사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여러분이 있어 진안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있다."며 "복지는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한다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식품산업 발전 토대 마련

장수농업과 식품기업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지난 9일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단장 신정규) 등과 장수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군은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 농업회사법인 동방제유(주), 신가가마솥, 하루의 아침 등 4개 식품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수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시스템 구축과 식품기업의 이전 및 확장에 따른 조기 안정화, 관내 고용인력 창출에 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장수군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전북도의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97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수지역의 농축산물을 연계한 식품기업유치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농축산물 안정적인 판매? 유통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농공단지 내 식품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기업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갖고 장수군 우수농산물 및 지역적 이점 등을 홍보해왔으며 지난 8월 식품기업 유치 공모를 통해 장수군으로의 이전 및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유치기업을 확정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장수군의 주요 생산물을 식자재로 하는 신제품의 개발과 공동마케팅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연간 34억원의 지역농산물 판매와 85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정규 장수식품클러스터 단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식품기업과 상호 협력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식품기업은 청정하고 품질좋은 장수의 이미지 브랜드화로 장수군 식품산업을 동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촌재능나눔 일반캠프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은 지난 9일 농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재능나눔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능나눔 캠프' 일반 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학생 및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재능나눔캠프가 꽃잔디축제로 유명한 원연장 마을에서 열린다.

농촌재능나눔 캠프 참가자들은 원연장마을 마을광장과 골목길 담장을 정비하고 벽화를 그리게 된다.

특히 일손돕기, 의료 활동 지원, 영화상영,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추진 사례 강의 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 및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 활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항로 군수는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서면마을 강모씨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주군, 주민 속으로 파고든다

서면마을 기초생활수급자 찾아 노후주택 개선

무주군은 주민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눔 활동은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일에는 무주읍 서면마을 강 모씨(7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0여 명의 공무원들은 집 주변 잡초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을 개선했으며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개량하고 지저분한 가재도구들을 정리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장 이기수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한 시간이 민원업무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9일에 추석을 앞두고 5백여 무주군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을 찾았다. 군에서 1마을 1담당제도를 통해 세대별 불편사항을 챙기며 해당 마을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상황과 주요 행정지원사항 등을 안내하며 주민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 해줬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셔틀버스 확대 운영

8개 노선 115대 차량 운행

완주군은 2016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제장 인근 4개 노선 및 전주시 2개 노선 이외에도 완주군의 대표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 전주한옥마을을 운영하는 관광지연계 코스 등 총8개 노선에 115대의 차량이 운행되어(1일평균 38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역과 종합운동장, 완주군청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고산시장, 고산초교 등 축제장 인근에서는 수시로 운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셔틀버스에 축제안내해설사를 배치, 축제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은 "축제장 인근에 285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총 3,500대 규모의 주차가 가능하다"며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와일드푸드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 봉동 생강가루 이마트 납품

조합공동법인 통합마케팅 성과

명품으로 소문난 완주 봉동생강으로 만든 생강가루가 이마트에 납품되어 전국의 매장에서 판매된다.

이번에 납품되는 완주 고산면 봉상생강조합의 생강가루는 생강을 활용한 초절임을 수출하고, 튜브형 생강다짐을 생산 하는 등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업체로 소문이 나 있다.

이번 첫 달 납품되는 물량은 60g 10,800개로 가공되지 않은 원물로 계산하면 약 6.5톤의 생강을 출하한 것과 같아 지역의 생강 생산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완주 봉동생강가루가 전국 이마트에 납품되기까지 조합공동법인(대표 구법용)의 공이 크다.

완주의 통합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공동법인(대표 구법용)은 조직화되지 않고 도매시장위주로 출하하던 운주 취나물을 하나로 클럽에 고정출하시켰고, 화산, 고산, 봉동의 지역 농협단위로 판매하던 양파를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은 로컬푸드를 통해 판매하고, 전업농, 대농이 생산한 농산물은 조합공동법인의 통합마케팅을 통해 유통하는 것 등 완주군의 통합마케팅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가 수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군 - 산림아카데미 '맞손'

임업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보 · 기술 관련 협업 약속

무주군이 임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일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최고경영자를 양성하는 민간주도의 교육기관으로, 기관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신기술 및 정보교류, △천마와 호두, 표고 등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육성을 위한 협력 지원, △유망 임산물 선정과 더불어 재배기술 및 가공, 유통에 관한 자문, 임업 6차 산업화를 위한 정보지원, △산림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귀농 귀촌인 교육 등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을 비롯한 산림 최고경영자과정 임원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정수 군수는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무주군 최대 자원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산"이라며 "협약을 통해 산림이 무주군 임업과 농업, 관광산업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고 무주가 전국의 산림 CEO를 양성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측에도 잊지 못할 영감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로컬뉴스

장수군, 추석 연휴 비상진료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보건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민간의료기관, 약국은 일정별로 정상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연휴기간 중 발생되는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체계를 구축, 진료공백과 군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수경찰서, 무진장소방서와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119 구급대를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 및 불편사항 시 장수군보건의료원(350-3109)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친환경 명절 보내기 추진

진안군은 지난 9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추석명절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추진되는 캠페인은 정부의 2030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37%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생활 분야의 실천문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군은 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소식지 등을 활용해 추석선물은 친환경상품 그린카드로 구매, 고향길은 대중교통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 명절음식 먹을 만큼 차리기, 성묘 시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친환경 명절을 보내기 위한 실천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뜻 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친환경 명절 보내기 캠페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서 · 보안협력위원회 추석 맞아 북한이탈주민 위문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지난 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해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경찰과 보안협력위원장이 무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애로사항과 경찰에 바라는 점도 청취했다. 이날 선물을 전달받은 김모씨(여)는 무주경찰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어 안심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최성규 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안협력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갑질 근절 TF회의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갑질)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일 갑질횡포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갑질 횡포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빈발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나 고용·인사 비리 등 고질적인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100일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 대상은 하청업체 강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고용·인사비리, 외국인 노동자 폭력·갈취,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